

임보람(강원대)

조자영 선생님께서는 이번 발표문에서 1920~1930년대 ‘풍속괴란’ 검열을 외설 규제나 도덕 통제의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적 감정의 형성과 결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통치 장치로 재해석하셨습니다. 특히 ‘치안방해’와 ‘풍속괴란’을 동일한 목적성을 공유하는 두 축으로 파악하시고, 검열된 작품과 검열을 피한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허용된 서사’의 구조를 추적하신 점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매춘이라는 소재가 어떠한 서사 구조 속에 배치되는가에 따라 불온으로 분류되거나 허용의 범주에 놓이게 된다는 분석은, 검열 연구를 제도사적 논의에서 정동 정치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저는 이 연구가 ‘검열은 무엇을 금지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검열은 어떤 감정의 형성을 허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래에 드리는 질문들은 발표문의 논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이해가 미흡하여 논지와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김정화, 문한별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소낙비」의 검열을 매춘 장면의 외설성, 혹은 식민 현실 비판의 강화와 연결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궁핍한 농민이 생존을 위해 아내의 매춘을 허용하는 구조 자체가 식민 체제의 가혹함을 드러낸다는 점이 검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생님께서는 삭제된 대목의 문제를 외설성의 강도에서 찾기보다, ‘주사’라는 권력 위치에 있는 인물이 쾌락의 주체로 등장하고, 그 장면이 독자의 공분이나 조소를 조직할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 비판성 그 자체보다 그것이 형성할 수 있는 감정의 방향과 집합 가능성에 분석의 초점을 두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실 고발성과 감정 조직 가능성은 과연 구분 가능한 범주인지요. 식민 현실을 고발하는 서사는 동시에 독자의 감정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본 발표문의 차별성은 두 범주를 분리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감정의 집합 가능성을 검열 판단의 1차적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데 있는지에 대해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풍속 검열이 집단적 동요나 결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선생님의 정리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복덕방」의 결말에서 공동체적 애도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남는 구조가 집단적 정동으로 확장될 여지를 지닌다는 분석은 발표문의 핵심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논지를 한층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검열 문건에서 실제로 ‘동요’, ‘집단’,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적 보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풍속괴란으로 분류된 다른 사례들에서도 유사한 판단 논리가 반복되는지, 혹은 치안문란 항목과 교차하는 사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면 발표문의 중심 명제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감자」에서 구조적 빈곤이 개인의 도덕적 붕괴로 환원되고, 「정조와 약가」에서 위반이 처벌이나 파탄으로 이어지기보다 가정의 회복과 도덕적 교훈으로 정리되며, 「가을」에서는 풍자가 갈등을 끝내 판단으로 수렴시키지 않은 채 유예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분석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작품 모두에서 사회 구조의 모순은 전면에 제기되지 않고, 인물의 선택이나 윤리적 결함의 문제로 재배치된다는 점이 일관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처리 방식이 독자의 감정을 체제 비판이나 집단적 분노로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개인화’가 작가들이 검열을 의식하여 선택한 전략적 서사 형식이었는지, 아니면 식민지 통치가 설정한 판단 기준과 가치 질서가 문학의 재현 구조 속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작동한 결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검열을 외부의 통제 장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문학 내부의 감각과 판단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발표문의 문제의식은 또 다른 층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정조와 약가」에서 아내의 희생이 “제국이 요구하는 자기희생적 여성성의 모델”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신 대목을 읽으며, 풍속 통제가 또 다른 층위에서도 작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매춘이라는 위반은 처벌이나 파탄으로 나아가지 않고 가정의 회복과 명랑한 결말로 수렴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갈등을 봉합하고 질서를 복원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정조의 상실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집단적 동요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국이 요구하는 여성상과 가정 질서를 긍정하는 감정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도 함께 지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풍속을 치안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는 관점과 더불어, 그것이 성 규율과 여성 통치의 방식으로도 기능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집단적 감정의 통제와 여성성 및 가정 이데올로기의 관리가 어떤 지점에서 교차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해진다면 발표문의 논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